

## 일본어로 풀어보는 일본사회: 무라하치부(村八分)

일본 사회는 집단성이 강해 개인보다 자기가 소속된 집단을 중요시 하는데 무라하치부란 이러한 공동체내의 규율 및 질서를 어긴 자에 대해 집단이 가하는 소극적인 제재 행위를 가리키는 속칭임

### □ 일본사회의 집단주의/전체주의

- 집단의존 성향이 강한 일본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집단으로부터 버림받는 것임
  - 일본사람이 느끼는 집단으로부터의 따돌림은 사회생활을 정상적으로 영위하기 어려워지는 것은 물론 다시 헤어내기 어려운 미궁을 의미
  - 집단의 규칙과 규범을 어기면 반드시 응징을 받는 사회가 일본이며 이러한 일종의 징벌을 에도(江戸)시대부터 무라하치부라고 했음

### □ 무라하치부와 일본인의 집단의존적 의식구조

- 무라하치부라는 말에 포함된 숫자 八(8)의 의미를 풀어보면 일본사람들의 또 다른 의식구조를 엿볼 수 있음
  - 총 10가지 중에 8가지에 대해서는 제재를 가하지만 나머지 2가지는 아무리 무라하치부가 되었더라도 같이 공유하고 왕래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음

- 제재에서 제외시켜주는 두 가지 예외가 있는데 그것은 집안에 불이 났을 경우와, 그 사람이나 가족 중 누군가가 세상을 떠났을 경우임
  - \* 목조건물이 많은 일본에서 화재가 나면 흔적을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모든 것을 잃게 되고, 죽음이야 더 말할 나위 없이 주위의 온정이 필요한 때로 서로간의 왕래를 끊는 일이 있더라도 가장 불행한 때만큼은 서로 마음을 나눌 수 있도록 최소한의 배려는 남겨두었음
  - \* 일절 왕래를 끊고 상대를 안 해주었던 무라하치부의 하치(八 숫자 8)는 관(冠), 혼(婚), 건축(建築), 병(病), 수해(水害), 여행(旅行), 출산(出産), 기일(忌日)을 나타내며 관(冠)은 지금의 성인식을 가리키는 말임
- 무라하치부가 일본의 에도(江戸)시대에 있었던 퇴물로 생각해서는 안 되며 현재도 엄연히 존재하고 있음
- 지난 2000년 효고(兵庫)현에 있는 조그만 산간마을에서 무라하치부 사건으로 소송이 제기되었음
  - 문제발단은 마을에 있던 초등학교의 통폐합에 반대한 원고와 이를 관철시키려는 마을 주민들 사이의 의견대립에서 시작되어 다 해서 일곱 가구밖에 안 되는 마을촌장이 다섯 가구와 함께 원고를 상대로 일체의 행정서비스는 물론 관보배달과 각종 행사 연락, 소화기 설비 등을 거절했음
  - \* 이에 원고는 촌장을 상대로 소송을 냈고 촌장을 중심으로 ‘공동절교행위’가 있었다고 인정되어 원고의 승소로 끝이 났으나, 이후에도 마을의 각종 행사에 원고만을 부르지 않은 등 무라하치부 상태는 지속되었음
  - \* 일본사회에서 모두에게 평등하다는 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더라도 한번 낙인이 찍힌 집단의 이단아는 결코 다시 동화 될 수 없다는 현실을 보여주는 사례임

## □ 무라하치부와 현대의 이지메

- 무라하치부가 현재도 엄연히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은 현대판 무라하치부라 할 수 있는 이지메(いじめ, 따돌림) 현상을 보면 분명하게 알 수 있음
  - 이미 심각한 수준에 달해있는 이지메 현상은 일본의 집단적 문화에 그 뿌리를 두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이는 내부 결속을 당연하게 생각하면서 집단에서의 이탈과 끼지 못한 사람에 대한 배타적 대응으로 나타난다 할 수 있음
- 일본의 2005년 청소년 백서에 따르면 초중고와 맹아, 농아, 양호 학교에서 지난 2003년에 파악된 이지메 건수가 무려 2만 3351건으로 집계되었음
  - 이는 8년 만에 다시 증가세로 돌아서 위험 수위를 넘어서고 있다는 경고를 하고 있음.
  - 특히 중학교가 전체 발생 건수의 38%를 차지하고 있어 가장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
- 과거 에도(江戸)시대의 무라하치부와 달리 현대의 이지메는 다소의 예외 조항도 주어지지 않음
  - 현대판 무라하치부라 할 수 있는 이지메는 국내에도 이미 보도된 몇몇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듯이 가혹행위가 상상을 초월한다는 데 그 심각성이 있음
  - 이러한 현상은 이웃나라만의 일이 아니며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왕따라는 신조어를 만들어 내며 한국에 일찌감치 상륙해 있음.